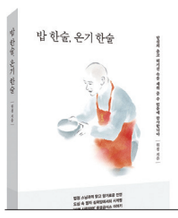
“당신의 춥고 허기진 속 채워줄 수 있음에 감사”



밥 한술, 온기 한술
원경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내 산길을 오르면 예쁜 암자가 하나 있다. 이 도량에 들어서면 큰 보호수와 너럭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도심속에 아름다운 절 ‘심곡암’이다. 1998년 제 1회 산사음악회 취재를 위해 심곡암에 오른 적이 있다. 올라가는 길이 제법 가팔라 사찰 셔틀버스를 타고 간 기억이 난다. 불교계 최초로 전통 사찰서 열린 현대적인 사찰음악회였다. 너럭바위 위에서 진명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사회를 보며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한 케빈컨의 뉴에이지 음악이 흘러나와 많은 이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오색 가을 단풍이 휘감은 아름다운 심곡암처럼 감미로운 선율이 도량에 울려퍼져 관객들을 모두 취하게 했다. 가을이 되면 심곡암이 생각나는 이유다.

그 이후 23년째 북한산 형제봉 골짜기에 위치한 심곡암의 주지를 맡고 있는 원경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이 〈밥 한술, 온기 한술〉이란 제목의 신간을 펴냈다. 제목에서 금방 느끼듯이 원각사 무료급식소 운영자이기도 한 저자가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을 마주하며 기록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아름다운 마음이 조각보처럼 형형색색 모여 있는 곳. ‘사랑’과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곳, 여기가 바로 원각사 무료급식소다. 온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마음자리를 내어주는 봉사자들, 급식소 현장을 찾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풍경들을 책에 담았다.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는 저자와 봉사자들의 따스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 심곡암 주지로서의 일상과 사유를 담아낸 글들은 독자들에게 소박하지만 온기 가득한 한 상을 대접받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심곡암의 사계절, 법정 스님을 비롯한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 이야기, 그리고 그간 깨달아 온 삶의 지혜와 통찰 등 한 명의 수행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깨달음 또한 진솔하게 풀어냈다. 심곡암은 저자에게 일상의 터전이자 수행의 처소이므로 그곳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 원경 스님은 이 책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혹은 지속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서나마 사랑과 연민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며 사랑하며’ 내면의 덕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 같은 곳이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사회복지 원각)가 아닐까 싶다”며 “이 책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썼다. 내면의 허기를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온기 가득한 밥상을 대접하자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이 책이 누군가의 빈 속을 든든히 채워 주는 따뜻하고 푸짐한 한 상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원각사 무료급식소 운영자인 저자 원경 스님(사진 왼쪽)이 급식소를 찾은 노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 1부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라는 말〉을 통해 저자는 코로나19 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맡은 과정과 이곳서 일어난 다양한 풍경을 기록했다. 대중들과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복지 불교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저자에게, 무료급식은 단순히 ‘먹고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저자는 밥이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 수단이 아닌 인간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임을 책에서 강조한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모름지기 음식에는 ‘온기’가 있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낀 연유에서다. 추운 날씨에 먹는 따스한 음식은 굳은 마음마저 녹이는 매개체임을 알기에 그는 오늘도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라는 말과 함께 급식소를 찾은 이들에게 음식을 건넨다.

맑고도 향기로운 인연의 소중함

심곡암이 저자의 일상 터전이자 수행 처소로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심부라면, 그 곳을 지탱하는 토대에는 맑고도 향기로운 수많은 인연 속에서 얻은 선물들로 가득하다. “저마다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있더라도 항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과 연민을 나누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얻은 감동과 깨달음이다. 그래서인지 제 2부 〈심곡 일지〉에서는 유독 세 편에 걸쳐 정성스레써 내려간 ‘법정 스님’과의 일화가 눈에 띈다. 저자가 LA에 있는 고려사 주지로 지내던 시절, 이곳을 방문한 법정 스님과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는 행운을 얻은 그는 스님과 한 상에서 같이 밥 먹고, 산책길에 동행하며 가까이서 스님을 모시는 귀한 경험을 했다. 법정 스님이 머물다 가신 자리는 늘 맑고 청결했고, 또 향기로웠다. 자신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깨우침을 실천한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그의 수행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원각사 무료급식소 봉사자 이야기 담아 법정 스님 등 향기로운 인연담 이야기도 수행서 깨우친 인생의미에 대한 글 소개”

저자는 심곡암에 20여 년째 머물면서도 참 많은 인연을 맺어 왔다. 이곳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물론, 심곡암 곳곳에 핀 꽃들과 나무, 바위틈에 핀 들꽃까지 모든 자연물과 인연을 맺고 교감을 나누었다. 그렇게 내면에 간직한 사랑은 삶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올랐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원각사 무료급식소 봉사자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심곡암까지 오는 해맑은 표정의 보살님, 아직도 가슴 한켠에 애틋하게 자리 잡은 부모님, 싱그러운 미소로 심곡암을 찾아온 청년 불자들….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의 모습은 제각기 달랐으나 저자는 다만 이렇게 말한다.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만이 덧없는 세월 속에 피는 꽃같이 선명하다”라고.

항상 배우고 공부하며 늘 새롭게 태어나는 삶

제 3부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는 그가 이제껏 살아오며 깨우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글을 모았다. 삶의 어려움과 갈등을 대하는 지혜,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등을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녹여냈다. “자신의 생활을 덜어 내어 어렵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 귀한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시련과 맞닥뜨리는 힘을 키우는 방법, 요즘과 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삶의 태도 등이 저자의 경험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행자로서의 일상과 사유들을 소박하고도 진실되게 담아낸 〈밥 한술, 온기 한술〉은 코로나로 피로감이 겹겹이 쌓인 우리의 상실감들을 치유해 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원경 스님**은?

전남 순천 송광사서 석림 현호 화상을 은사로 득도. 동곡 일타 스님께 사미계를,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산 범어사서 자운 성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보광선원서 첫 하안거 이후 제방선원 수선 안거를 지냈다. 중앙승가대학 8회로 졸업했으며, 미국 LA송광사 분원인 고려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북한산 ‘심곡암’ 주지로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도 겸하고 있다.

2015년, 스무 해 가까이 이어져온 배고픈 어르신들을 위한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사회복지 원각)’가 운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출가수행자로서 당연히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어 기사구제(飢死救濟)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념으로 선뜻 급식소 운영을 맡았다. 이 외에도 1998년 불교계 최초 전통사찰 속 현대적 사찰음악회를 연출, 북한산국립공원 내 ‘도심 속의 아름다운 절, 심곡암’이 개최하는 〈산사음악회〉를 23년째 이어 오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시인 회원으로 시집 〈그대, 꽃처럼〉과 산문집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란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를 출간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손수레에 도시락을 싣고 봉사자 몇 분과 함께 주변 노숙자들을 찾았다. 냉기에 절여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네는 도시락에 아직 온기가 남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먹는 따스한 음식은 소화에도 이롭지만 굳은 마음마저 녹이는 법이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이 갖는 의미는 크다. 모름지기 음식에는 ‘온기’가 있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라는 말〉 中에서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큰 폭풍 같은 시련이 당장은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겨 내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은 더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마음에도 굳은살이 박여 웬만한 생채기에는 끄덕하지 않는 힘이 길러진다. 살면서 태풍 같은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행운을 기대하기보다는 맞닥뜨릴 힘을 키우는 편이 좋다.

〈태풍 전야〉 中에서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Taego Order of Buddhism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